

어문연구 제5권 1995년 2월

## 兼好의 生活觀에 關한 一考察

- 『徒然草』를 중심으로 -

張 晋 洙\*

### <目 次>

I. 序論	4. 生活指針
II. 本論	5. 生活哲學
1. 生活觀	III. 結論
2. 儉約觀	參考文獻
3. 處世觀	

### I. 序 論

本 研究의 目的은 中世 日本 三大 隨筆文學의 하나인 『徒然草』에 나타난 兼好의 思想 속에서 生活觀을 中心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있다. 兼好의 生活 속에 나타나 있는 智慧와 生活方法, 處世, 儉約 等 여러면에 걸쳐서 나타난 兼好의 生活觀, 儉約觀, 處世觀, 生活指針, 生活哲學으로 大別하여 考察 하였다.

여기서 生活觀을 定義하여 보면 사람이 生活을 維持해 가는데 있어서 지켜야 할 生活 속의 모든 行動, 思想, 哲學의 總括적인 面을 일컫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 生活觀은 그 時代의 變化에 相關없이 正統性을 維持할 수 있으나 항상 變化는 뒤따르기 마련이다.

于先, 兼好가 살던 時代의 歷史의 背景을 살펴보면 兼好는 鎌倉 時代 末期부터 南北朝 初期까지 살았던 것으로 推定된다. 이 時期의 日本은 公家와 武家の 싸움에서 公家が 敗하고 武家が 勝利하여 封建社會가 무너지고, 幕府의 勢力이 強해지기 始作 하였다. 百姓들은 繼續된 戰亂으로 항상 不安한 世情 속에서 末世思想과 無常觀에 젖어 佛門에 入道하는 사람이

\* 韓國海洋大學校, 助教授. 日文學.

많아졌다. 이러한 中世의 暗鬱한 時代 狀況 속에 兼好의 實在的으로 나타난 生活觀과 無常觀을 精神生活의 基底로 삼고, 物質的인 經濟 生活을 바탕으로 삼아 生活觀과 精神의 生活哲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戰爭으로 말미암아 百姓들의 生活은 더욱더 疲弊해 졌고, 그 속에서 爲政者의 勤儉, 節約觀을 直接, 間接的으로 透影해 보았으며 百姓들의 儉約하는 生活 모습을 찾아 보았다. 또, 世上을 살아가는데 必要的 處世觀에 대해서는 處世訓과 處世思想을 中心으로 살펴 보았다.

그리고 兼好는 儉素하고 正直하게 살아가라는 生活指針의 方向을 人間에게 提示 하였다. 한가지 일에 沒頭 한다든가, 술자리에서의 올바른 行動, 生活하는 態度에 對한 思想的 生活指針을 分析하여 보았다. 마지막으로 兼好의 生活 哲學에서는 人間 生活의 多樣한 面을 例로 들어 說明 하였다.

人間은 謙遜하고 放恣하지 말아야 하며,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하다든가, 모든 機會는 時運이 있어야 한다든가, 不具者를 조롱해서는 안된다는 것 등, 障礙者에 대한 面까지 關心을 가지고 세심하게 살펴 보았다. 또 道德的인 思想을 基礎로 한 兼好의 生活 哲學을 分析하여 보았다.

이와같은 兼好의 生活 哲學은 우리나라의 明心寶鑑<sup>1)</sup>, 四書三經 등에도 명언 명구가 많이 있지만 내용이나 뉘앙스가 조금씩 다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徒然草』와 뜻이 비슷한 名言의 내용만을 골라 例로 들어 보았다.

本稿에서는 思想的인 面을 重要하게 생각하는 文學作品 研究라는 觀點에서 戰亂時代의 社會, 文化, 經濟, 統治者의 思想等, 『徒然草』에 나타난 兼好의 生活觀을 살펴 보았고, 封建制度和 中世 文化가 現代 日本 精神에 끼친 影響에 대한 文學的, 思想的 生活觀을 考察하여 보았다.

本稿는 『徒然草 全注釋』上, 下卷(安良岡康作, 角川書店, 1991)을 參照하였고 또, 小出 光著의 『徒然草』等을 參照 하였으며, 그 외 많은 參考文獻을 拔萃하여 研究 하였음을 아울러 밝혀둔다.

1) 고려 충렬왕 때 문신 이었던 秋適이 저술한 책으로 한 개인의 인간 수련에서부터 국가를 다스리는 문제까지 원칙론으로 쓰여 있다.

## II. 本 論

### 1. 生活觀

生活觀이란 日常生活 속의 禮節, 法道, 生活 方法, 規範, 生活 風習, 處世, 儉約, 名言, 環境 등을 包含한 人間의 生活을 維持해 나가는데 있어서 지켜야 할 모든 行動, 思想, 哲學의 總括적인 面을 生活觀이라 한다.

여기서는 兼好의 狹義의 生活觀을 例로 들어 삶을 營爲해 나가는데 必要한 思想과 智慧를 알아 보고자 하는데 그 意義를 둔다.

家屋의 建築 構造에 대한 例를 들어 보자.

「家の作りやうは、夏をむねとすべし。冬は、いかなる所にも住まる。暑き比わろき住居は、たへ難き事なり。深き水は、涼しげなし。残くて流れたる、遙かに涼し。……天井の高きは、冬寒く、灯暗し。」<sup>2)</sup> (第55段)

(가옥을 건축할 때에는 그 構造를 여름철에 맞도록 하는 것이 좋다. 겨울에는 어떠한 곳에서나 참고 견딜 수 있지만, 더울때에 나쁜 주택은 참기 어렵다. 마당에 주는 물 따위도 괴어있는 깊은 물은 시원한 맛이 없고, 얇게 흐르는 물이 훨씬 시원하다. …… 천장이 높으면 겨울에 춥고 등불이 어두워서 좋지 않다.)

濕氣가 많은 日本의 기후 조건에 맞는 家屋 建築 양식에 대한 여러가지 內容을 자상하게 이야기 해 주고 있다. 庭園의 草木에 물을 주는 것에서부터 미단이, 天井 등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보여 주고 있다. 兼好의 經驗을 통해 生活方法을 설명해 주고 있다.

또, 鹿茸에 대한 例를 들어 보자.

「鹿茸は鼻に当ててかぐべからず。小さき虫ありて、鼻より入りて、惱を食むと言へり。」<sup>3)</sup> (第149段)

(鹿茸 말린 것을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아서는 안된다. 아주 작은 벌레가 있어서, 코로 들어가서 腦髓를 갉아 먹는다는 이야기이다.)

當時 日本에서 鹿茸이 補精強壯劑로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 그런 관점에서 本段을 説明한 것은 鹿茸 이용자에게 有益한 것이 되지 않나 하고

2) 安良岡康作, 徒然草全注釋 上卷, 角川書店, 1991. P. 256.

3) 安良岡康作, 前掲書 下卷, P. 93.

『徒然草』 속에 집어 넣었다고 생각된다.

이 내용은 그의 醫師인 友人으로부터 들은 知識일 것이라고 推測된다. 現代 醫學에서 보면 이와같은 내용은 재미있는 民間醫學에 불과하고 生活하는데 注意心을 強調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번에는 自給自足 하도록 권유하는 例를 들어 보자.

「人の才能は、文明らかにして、聖の教を知れるを第一とす。次には、手書く事、むねとする事はなくとも、これを習ふべし。學問に便りあらんためなり。次に、醫術を習ふべし。……次に、食は、人の天なり。よく味はひを調べ知れる人、大きな徳とすべし。次に 細工、方に要多し。」<sup>4)</sup> (第122段)

(人間の 才能은 서적에 잘 통하고 聖人の 가르침을 아는 것을 첫째로 한다. 다음은 글씨를 능숙하게 쓰는 일인데,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書藝는 배워두는 것이 좋다. 학문을 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다음에는 醫術을 배우는 것이 좋다. …… 다음에 음식물은 인간에게 있어서 목숨을 기르는 중요한 것이다. 잘 조리하고 맛을 아는 사람은 큰 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手工이다. 이것은 만사에 필요하다.)

兼好는 배울 수 있는 한 生活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많은 것을 배우라고 勸誘하고 있다. 卽 兼好는 生活하는데 있어서 自給自足 하도록 誘導하고 있다. 當時에는 專門的인 病院이나 飲食店, 手工藝品을 파는 곳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급한 狀況에서 응급 조치 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의 能力을 必須的으로 기르도록 勸誘하고 있다.

이번에는 인간이 살아 가는데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四大 要素에 대한 例를 들어 보자.

「思ふべし、人の身に止むことを得ずして營む所、第一に食ふ物、第二に着る物、第三に居る所なり。人間の大事、この三つには過ぎず。穢ゑず、寒からず、風雨に侵されずして、閑かに過すを樂しびとす。ただし、人皆病あり。病に冒されぬれば、その愁忍び難し。醫療を忘るべからず。藥を加へて、四つの事、求め得ざるを貧しとす。この四つ、欠けざるを富めりとす。」<sup>5)</sup> (第123段)

(우선 생각해 보라. 人間으로서 부득이 해야 할 일은 첫째 음식이요, 둘째로 의복, 세째로 住居이다. 世俗의 大事는 이 衣食住의 세가

4) 安良岡康作, 前掲書 上卷, P. 514.

5) 安良岡康作, 前掲書 上卷, P. 519.

지에 불과하다. 굶주리지 않고 헐벗지 않으며 비바람에 맞지 않고 조용히 사는 것이 人生의 樂인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병에 걸린다. 병에 걸리게 되면 그 고통은 이만 저만이 아니다. 그래서 醫療는 내칠 수는 없다. 그러한 뜻에서 藥까지 포함된 네가지 것이 부족함을 가난하다고 하고, 그 네가지 것이 부족하지 않음을 부유하다고 한다.)

人間生活에서 基本이 되는 가장 重要한 것은 衣·食·住·藥이라고 定義하고 있다. 이 네가지 要素가 부족함이 없으면 豊足한 生活이라고 한다. 이 四要素가 부족하면 가난하다고 하며, 그 以上을 바란다면 奢侈와 享樂이라고 하였다. 이와같이 兼好는 더 많은 것을 所有하기 위해 발버둥 치거나, 안달하는 사람을 輕蔑하고 있다. 이미 그 當時에 銳利한 眼으로 비판한 高邁한 思想은 現代人에게도 꼭 필요한 生活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는 危急한 狀況에 대한 人間의 서로 다른 意識과 態度에 대하여 예를 들어 보자.

「近き火などに逃ぐる人は、『しばし』とや言ふ。身を助けんとすれば、恥をも願みず、財をも捨てて遁れ去るぞかし。」<sup>6)</sup> (第59段)

(근처에 난 火災를 벗어나려고 달아나는 사람이 불을 향해서 『아, 잠깐만 기다려 주어』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 生命 하나를 求하기 위해서라면 부끄러움도 아랑곳 없이 재산이나 보화를 내버리고 달아나는 법이다.)

이 段은 人間의 가장 극단적인 내면을 보여 주고 있다. 아무리 재산이 중하고 체면이 대단한 일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生命에 위협을 느끼게 되는 不可抗力의 일 앞에서는 앞뒤 생각할 여지없이 도망가기 마련이다.

이 말은 급하게 되면 체면이나 부끄러움도 없이 自己 生命을 求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兼好는 火急한 火災나 죽음에 대해 미리 準備해 두라고 忠告해 두고 있다. 이것은 人間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生活의 智慧를 提供하여 주고 있다.

이상 기술한 것은 兼好의 生活觀을 여러 方面으로 살펴본 것이다. 사회적 역사적으로 불안했던 한 시대를 살았던 그가 無常感에 사로잡힌 中世人들과 부질없는 공리주의적 욕망에 사로잡힌 상반된 이들에게 精神의 儉約觀을 바탕으로 삶의 다양한 方法의 生活觀을 提示한 것은 現世를 自覺

6) 安良岡康作, 前掲書 上卷. P. 270.

하고 來世에 대비 하도록 하는 현명한 처사라고 평가 된다.

## 2. 儉約觀

儉約觀이란 儉素하고 節約하며 浪費하지 않는 觀念을 말한다. 爲政者の 儉約觀은 한 國家의 統治 哲學이라고 할 수 있으며, 全 百姓의 精神的인 支柱 役割을 附與해 주고 있다. 特히 爲政者の 儉約觀은 百姓들과 國家의 興亡을 가름하며, 國家를 興盛하게 만들어 주는 根本이다. 이 章에서는 兼好의 作品 『徒然草』 속에서 儉約觀을 抽出하여 論理的으로 分析, 研究하고자 한다.

第2段을 例로 들어 爲政者들의 儉約한 生活 態度에 대해 例를 들어 보자.

「いにしへのひじりの御代の政をも忘れ、民の愁、國のそこなはるるをも知らず、万にきよらを尽していみじと思ひ、所せきさましたる人こそ、うたて、思ふところなく見ゆれ。『衣冠より馬・車にいたるまで、あるにしたがひて用るよ、美麗を求むる事なかれ』とぞ」<sup>7)</sup> (第2段)

(옛적에 훌륭했던 聖王 聖代の 政治를 돌이켜 보고 研究해 보려는 생각은 하지도 않고, 백성이 걱정하고 나라가 손상 되는 일 따위는 아랑곳없이 호화 극치의 생활을 즐기는 것이 몹시 장한 일이나 되는 것처럼 으시대며 거만하게 구는 인간 들이야말로 매우 한심스러운 무리라고 생각한다. 『衣冠에서 乘馬나 탈것<수레 따위>에 이르기까지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라. 결코 美麗함을 탐내어서는 안된다.』고)

兼好는 이 段에서는 統治者가 儉約하는 生活態度로써 百姓들의 模範이 되고 있다는 점을 強調하고 있다. 特히 爲政者の 精神姿勢가 確固하게 定着되어 있으면 그 만큼 百姓들의 삶에까지 지대한 影響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素朴한 生活態度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爲政者の 態度는 東西古今 어느나라에서도 지켜야할 法道이고, 또 過去, 現在, 未來를 通해 언제나 지켜야 할 態度이고 도리라고 생각한다.

이번에는 第216段을 例로 들어 더욱 深化시켜 보자.

7) 安良岡康作, 前掲書 上卷, P. 28.

「最明寺入道, 鶴岡の社參の次に, 足利左馬入道の許へ, 先づ使を遣して, 立ち入られたりけるに, あるじまうけられたりける様, 一獻に打ち鮑, 二獻に海老, 三獻にかいもちひにて止みぬ。」<sup>8)</sup> (第216段)

(最明寺의 北條時頼公이 鶴岡八幡宮에 참배하고 오는 길에, 足利義氏에게 미리 전갈을 보내 놓고 들른 일이 있었는데, 접대하는 절차는 매우 간소해서, 첫째 잔의 안주는 전복을 얇게 저며서 말린 것이고, 둘째 잔의 안주는 대하, 셋째 잔의 안주는 인절미가 나오고, 그걸로 접대가 끝났다. <일세를 풍미하는 권력자이자 지배자에 대한 대접으로는 지나치게 간소 했다는 뜻이다.>)

이 내용은 一世를 風靡하던 權力者이자 支配者에 대한 대접으로는 지나치리만큼 간소하게 술대접을 받았다는 이야기 이다. 여기서 나타난 內容과 같이 儉素한 生活이야 말로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 棟樑이며, 앞날을 밝혀주는 등불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統治者가 儉素한 生活을 했다는 것을 實在로 兼好가 그 當時 生存했던 목격자에게서 直接 들은 말을 적었다고 한다.

이어서 統治者의 儉約한 生活觀에 대하여 한例를 더 들면

「『この酒を独りたうべんがさうざうしければ, 申しつるなり。さかな(肴)こそなけれ, 人は静まりぬらん, さりぬべき物やあると, いづくまでも求む給へ』とありしかば, 紙燭さして, 隅々を求めしほどに, 台所の棚に, 小土器に味噌の少し附きたるを見出でて, 『これぞ求め得て候』と申ししかば, 『事足りなん』とて, 心よく數獻に及びて, 輿に入られ侍りき。その世には, かくこそ侍りしか』と申されき。」<sup>9)</sup> (第215段)

(『이 술을 혼자 마시기가 무엇해서 오시라고 했지요. 그런데 안주가 아무것도 없군요. 다들 잠이 든 모양인데, 무언가 안주가 될 만한게 없나 좀 찾아 보시겠소.』라고 하신다. 촛불을 종이로 한쪽을 가려서 들고 구석구석을 찾아보다가 부엌 찬장의 작은 접시에 된장이 조금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겨우 이것을 찾아냈습니다.』라고 가져다가 보였더니, 『아, 이거면 되었소.』라고 하시며, 몇 잔의 술을 드시고는 매우 기분이 좋아져 즐거워 하셨다. 그 무렵에는 그렇게 검소했지요 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 內容은 朝臣이던 平宣時가 늙은 後 옛날을 回想하며 한 이야기 이다. 最明寺의 時頼公이 어느날 저녁에 부르신 적이 있었다. 술안주로 부엌

8) 安良岡康作, 前掲書 下卷, P. 389.

9) 安良岡康作, 前掲書 下卷, P. 383.

의 찬장 속에서 된장이 조금 붙어있는 것을 發見하고 두사람이 기분 좋게 술을 마셨다는 이야기 이다. 이와같이 兼好는 爲政者의 儉素한 生活相을 바람직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소박한 인정에 대한 미덕을 관찰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번에는 一般 百姓의 缺乏生活을 第224段을 例로 들어 보자.

『この庭のいたづらに広きこと、あさましく、あるべからぬ事なり。道を知る者は、植うる事を努む。細道一つ残して、皆、はたけに作り給へ』といさめ侍りき。まことに、少しの地をもいたづらに置かんことは、益なき事なり。食ふ物・藥種など植ゑ置くべし。』<sup>10)</sup> (第224段)

(『이 정원이 이토록 넓은 것은 참 생각이 부족한 증거로, 안될 일이다. 생각이 있는 자라면 栽培를 하도록 하라. 좁다란 오솔길만 하나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두 밭으로 만드시오』라고 충고를 했다. 과연 조그마한 땅이라도 그냥 놀려둔다는 것은 좋지 않다. 食糧이 되는거나 藥種을 심는 것이 좋다.)

이 內容은 一般 百姓에게 儉約을 生活化하여 實踐하도록 전하는 것이다. 조그마한 땅이라도 놀려두지 말고 食糧이 되는 植物이나 藥種을 심어서 生活하는데 보탬이 되게 하라고 하며, 節約과 缺乏生活을 強調하고 있는 內容이다.

이번에는 慾望에 대한 例를 들어 보자.

『欲に隨ひて志を遂げんと思はば、百万の錢ありといふとも、しばらくも住すべからず。所願は止む時なし。財は尽くる期あり。限りある財をもちて、限りなき願ひに隨ふ事、得べからず。所願心に萌す事あらば、我を減すべき惡念來れりと固く慎み恐れて、小要をも爲すべからず。』<sup>11)</sup> (第217段)

(욕망 그대로를 이룩하려고 한다면, 百萬의 金전이 있다손치더라도 그 돈은 조금도 남아나지 않는다. 욕망은 끝이 없어서 많은 돈이라도 다 없어지는 시기가 반드시 온다. 한계가 있는 재산을 가지고 한계가 없는 욕망에 追隨해 가는 것은 불가능 하다. 만일 욕망이 마음속에 싹트는 일이 있다면, 자기를 멸망케 하는 惡念이 습격해 왔다고 완강히 거부하고 두려워 하는 동시에, 아주 적은 浪費도 해서는 안된다.)

이 句節은 財産은 限界가 있지만 慾望은 한계가 없다. 그러므로 人間은

10) 安良岡康作, 前掲書 下卷, P. 438.

11) 安良岡康作, 前掲書 下卷, P. 395.



慾望의 奴隸가 되지말고, 儉素하고 節約하는 生活을 하라고 兼好는 사람  
들에게 勸告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爲政者의 儉素한 生活態度는 그 나라  
의 國家施策의 根本的인 精神이 되어 確固한 經濟政策이 樹立되도록 만들  
고 있다.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우리나라의 明心寶鑑에서도 쓰여 있다.

「景行錄에云하였으되知足可樂이오務貪則憂니라.」<sup>12)</sup>  
(경행록에 이르기를, “넉넉함을 알면 가히 즐거울 것이요, 욕심이  
 많으면 곧 근심이 있느니라.”)고 적고있다.

또 百姓들의 儉約精神은 鎌倉 幕府時代의 基本 理念이 되어 國家를 富  
強하게 만드는 原因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같이 節約하고 儉約하  
는 精神은 오늘날 日本 社會에까지 큰 影響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兼好는 慾望은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 하찮은 財物慾으로 생기게 되는 葛  
藤과 不安에서 벗어나 마음만은 항상 便宜하고 즐겁게 가지라고 心的 安  
定을 表現하는 말까지 強調하고 있다.

이번에는 外來品 選好 思想에 대한 例를 들어 보자.

「唐の物は、藥の外は、なくとも事欠くまじ。……『遠き物を宝とせ  
ず』とも、また、『得難き貨を費まず』とも」<sup>13)</sup> (第120段)  
(中國에서 渡來하는 外來品은 藥을 除外하고는 없어도 지장은 없  
을 것이다. ……『먼 곳의 물품을 보배로 삼아서는 안된다.』거나 또  
『얻기 어려운 물건은 존귀하지 않다.』고)

新奇하고 稀貴한 것을 좋아하고, 外來品을 選好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  
나 변함없는 모양이다. 特히 權勢가 있고 財産이 많은 지도층과 支配層의  
사람에게는 外來品 選好思想은 魅力的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兼  
好는 藥을 除外한 外來品은 보배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했으며, 얻기 어러  
운 조건의 것은 尊貴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稀貴한 外來品을 단호하게 格  
下시켜 排斥하게 하고 있다. 이와같은 外來品 選好思想은 現 日本과 우리  
나라의 爲政者나 權力者, 富豪, 高所得者의 生活態度를 反省하게 하는 句

12) 李基奭 譯解, 明心寶鑑, 弘新新書, 1994. P. 80.

13) 安良岡康作, 前掲書 上卷, P. 508.

節이라고 할 수 있고, 東西古今을 통해서 歷史는 항상 되풀이 되고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

이번에는 禪尼의 儉約 精神에 대한 예를 들어 보자.

「相模守時頼の母は、松下禪尼とぞ申しける。守を入れ申さるる事ありけるに、煤けたる明り障子の破ればかりを、禪尼、手づから、小刀して切り廻しつつ張られければ、兄の城、介義景、その日のけいめいして候ひけるが、『給はりて、某男に張らせ候はん。さやうの事に心得たる者に候』と申されければ、『その男、尼が細工によも勝り侍らじ』とて、なほ、一間づつ張られるを、……世を治むる道、儉約を本とす。女性なれども、聖人の心に通へり。』<sup>14)</sup> (第184段)

(北條時頼의 어머니는 松下의 禪尼라는 이름으로 불린 여성이다. 어느 날, 아들 時頼를 초대할 적이 있었다. 검게 그은 미단이 문이 군데군데 찢어진 곳을 禪尼 자신이 일일이 칼로 도려내고 새 종이를 바르고 있는데, 그의 오빠인 義景이 그날의 접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와 있다가 그것을 보고, 『저에게 맡기시면 某라는 사나이에겐 시키겠습니다. 이런 일에 익숙한 자 올시다』라고 말하자, 禪尼는 『그 사나이는 잘 하겠지만 내 솜씨 보다는 못할 것이외다.』라고 대답하고는 문살을 한 칸씩 도려내고 새 종이를 붙이는 작업을 계속하는 것을…… 세상을 다스리는 길은 儉約이 그 근본이 된다. 禪尼는 비록 여성이기는 하지만 聖人の 精神과 상통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國家의 根本이 儉約이라는 것을 母親 禪尼를 통해 統治者인 아들에게 直接 教育시키는 內容이다. 鎌倉末期에 時頼卿의 母親을 松下禪尼라고 이름을 불리었다. 어느날 아들 時頼를 招待한 後에, 검게 때묻은 미단이 문이 군데군데 찢어진 곳을 禪尼 自身이 일일이 칼로 도려내고 새 종이를 바르고 하였다. 禪尼는 무엇이든지 헤어진 곳만 수리해서도 쓸 수 있다는 것을 아직 젊은 아들에게 일러주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世上을 다스리는 길은 儉約이 그 根本이 된다는 것을 아주 적은 것을 통해 實踐해 보이고 있다.

여기서 兼好는 훌륭한 인물 뒤에는 東西古今을 막론하고 훌륭한 母親이나 婦人같은 女人의 內助가 必須的이라고 強調하고 있다. 그래서 兼好의 儉約觀을 論하여 보면 物質的인 것보다 精神的으로 儉素하게 生活을 하려는 姿勢를 항상 유지하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日本 國民에게 널

14) 安良岡康作, 前掲書 下卷, P. 253.

리 퍼져있는 儉約 精神은 儉素하게 生活化 하는 것이 習慣처럼 몸에 베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類推해 볼 수 있다.

### 3. 處世觀

兼好의 處世觀은 處世訓과 處世思想으로 크게 나누어 說明할 수 있다. 人間은 社會的 動物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 社會的 文化的으로 그 社會에 알맞는 處世 方法이 있다. 社會에서 認定 받기 위해서는 基本的인 禮義, 즉 處世 方法을 찾아 行動하려고 必要的 敎訓을 쌓는 處世訓과 남들과 사귀면서 더불어 살아 가려고 하는 處世思想으로 나누어서 說明할 수 있다. 兼好는 『徒然草』속에서 處世訓에 대해 많은 部分을 削愛하고 있으며, 特히 그의 生活속의 處世思想은 폭넓은 經驗과 體驗을 바탕으로 깊이 있게 說明해 주고 있다.

그러면, 日本의 에티켓에 대해서 說明하여 보자.

「さしたる事なくて人のがり行くは、よからぬ事なり。用ありて行きたりとも、その事果てなば、疾く帰るべし。久しく居たる、いとむつかし。」<sup>15)</sup> (第170段)

(별로 긴한 불일도 없으면서 남의 집에 가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다. 꼭 불일이 있어서 갔다고 하더라도 불일이 끝나면 곧 일어나서 돌아 가는게 좋다. 오래 머뭇거리고 앉아 있는 것은 매우 성가신 일이다.)

이 句節은 家庭을 訪問할 때의 에티켓(Etiquette)으로 이러한 禮節은 現在 日本의 社會, 文化에까지 큰 影響을 끼쳤다고 생각된다. 特別한 境遇 이외에는 家庭을 訪問하거나, 招待하지 않는 日本 社會를 보아도 잘 알 수 있는 일이다. 또 이러한 비슷한 내용은 우리나라의 明心寶鑑에도 쓰여 있다.

「久住令人賤이요, 頻來親也疎라 但看三五日에 相見不如初라。」<sup>16)</sup>  
(오래 머물러 있으면 사람으로 하여금 미친하게 여겨지고, 자주 오던 친하던 것도 멀어지느니라. 오직 사흘이나 닷세만에 서로 보는 데도 처음 보는 것같지 않느니라.)라고 적고 있다.

15) 安良岡康作, 前掲書 下卷, P. 176.

16) 編輯部 編, 明心寶鑑, 栗谷 文化社, 1989, P.136.

이번에는 自慢心を 排除하라는 例를 들어보자.

「人としては、善に伐らず、物と争はざるを徳とす。他に勝ることのあるは、大きな失なり。品の高さにも、才芸のすぐれたるにても、先祖の譽にても、人に勝れりと思へる人は、たとひ言葉に出でてこそ言はねども、内心にそこばくのとがあり。慎みて、これを忘るべし。痴にも見え、人にも言ひ消たれ、禍をも招くは、ただ、この慢心なり。」<sup>17)</sup> (第167段)

(사람이란 자신의 長點을 자랑하지 말고, 남과 시비다툼을 하지 않는 것이다. 남보다 뛰어난 바가 있다는 것은 실은 큰 缺點이다. 신분이나 문벌이 남보다 높다거나 재간이 훌륭하게 뛰어났다손 치더라도, 또는 조상이 훌륭한 영예를 남겼다고 하더라도 남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사 입박에 내어서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마음 가운데 많은 罪科가 있다. 늘 조심하여 남보다 나은점을 잊어버리도록 해야 한다. 멍청이처럼 보이기도 하고 남에게 비난도 받으며, 災難을 초래하는 것은 이 慢心 때문이다.)

이 句節은 古今을 통해 東洋의 處世術의 基本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萬人에게 告하는 兼好의 達觀된 處世觀이며, 모든 人間에게 바라는 애뜻한 心情을 表現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가지 분야의 일이라도 通達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분명하게 자신의 缺點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라도 이것으로 完璧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고, 또 自慢心を 가지고 뽑내는 일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못나고 狡猾한 사람은 自慢하고 뽑내며, 또 缺點이 많은 人間은 自己自身을 알지 못하며, 無識하고 教養없는 사람은 精神病者와 같은 行動을 하고, 막나니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은 우리나라의 明心寶鑑에도 쓰여 있다.

「子曰 - 聰明思睿라도 守之以愚하고, 功被天下라도 守之以讓하고, 勇力振世라도 守之以怯하고 富有四海라도 守之以謙 이니라。」<sup>18)</sup>  
(공자가 말하기를, “총명하고 생각이 뛰어나도 어리석은 체 하여야 하고 功이 천하를 덮을만 하더라도 겸양하여야 하고 용맹이 세상에 떨칠지라도 늘 조심 하여야 하고 부유한 것이 四海를 차지했다 하더라도 겸손하여야 하느니라.”고 하셨다.)고 쓰고 있다.

17) 安良岡康作, 前掲書 下卷, P. 164.

18) 編輯剖 編, 明心寶鑑, 前掲書, P. 57.

이번에는 말(言)에 대한 例를 들어 說明하여 보자.

「大方は、知りたりとも、すずろに言ひ散らすは、さばかりの才にはあらぬにやと聞え、おのずから誤りもありぬべし。『さだかにも辨へ知らず』など言ひたるは、なほ、まことに、道の主とも覺えぬべし。まして、知らぬ事、したり顔に、おとなしく、もどきぬべくもあらぬ人の言ひ聞かするを、『さもあらず』と思ひながら聞きゐたる、いとわびし。」<sup>19)</sup> (第168段)

(대체로 아무리 잘 알고 있는 일이라도 조심성 없고 경박스럽게 마구 지껄여대면, 그다지 대단한 學才는 아니구나 하는 인상을 주며, 또 여러 말을 마구하다 보면 틀리는 수도 있을 것이다. 『확실히는 모릅니다.』와 같이 말하는 것은 정말로 그 방면의 권위자로우나 하는 인상을 주기도 할 것이다. 더구나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일을 아는 체 하는 데다, 나이가 위어서 가볍게 취급할 수도 없는 거북스런 상대자가 득의만만하게 지껄이는 것을, 속으로는 그렇지도 않은 데라고 생각하면서도 다소곳이 듣고 있거란 정말 싫증이 나고 피로운 일이다.)

人間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말(言)은 대단히 중요하다. 말(言)을 함부로 해서 一平生 亡身을 당하거나, 家門이 沒落하는 境遇도 發生하게 된다. 더구나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는 일을 아는 체 한다든가 항상 自己만이 똑똑하고 상대방은 全部 어리석다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조차 못하게 하든지 알보고 無視하는 眼下無人 等은 學才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兼好는 말하지 않는 學才는 그 方面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어도 『확실히는 모릅니다.』라고 말한다고 했다. 實在로 學才가 있는 사람은, 조심성 없이 경박하게 말을 하는 사람의 말까지도 주의깊게 들어 준다. 이와같이 남들보다 많은 長點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것도, 많이 알고 있다고 내세우는 것도, 잘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아는 체 하는 것도 올 바른 處世法에서 위배된다고 말하고 兼好는 말(言)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賢明한 사람이라고 主張 하였다.

이번에는 處世에 대한 例를 들어 說明하여 보자.

「人の、物を問ひたるに、知らずしもあらじ、ありのままに言はんをこがましてにや、心惑はすやうに返事したる、よからぬ事なり。知りたる事も、なほさだかにと思ひてや問ふらん。また、まことに知らぬ人も、などかなからん。うららかに言ひ聞かせたらんは、おとなしく聞

19) 安良岡康作, 前掲書 下卷. P. 167.

えなまし。人はまだ聞き及ばぬ事を、我が知りたるままに、『さても、その人の事のあさましさ』などばかり言ひ遣りたれば、『如何なる事のあるにか』と、押し返し問ひに遣るこそ、心づきなけれ。世に古りぬる事をも、おのづから聞きもらすあたりもあれば、おぼつかなからぬやうに告げ遣りたらん、悪しかるべきことかは。かやうの事は、物馴れぬ人のある事なり。』<sup>20)</sup> (第234段)

(남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면 모를 바도 아니면서 솔직히 대답하는 것이 무슨 주제넘는 일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상대방이 당황하거나 어리둥절할 대답을 하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다. 그 사람이 다소는 알고 있지만 더 분명히 알기 위해서 묻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 또 정말로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기 때문에 명백하게 설명을 해준다면 너무 교만스러워서 알밋다거나 수다스럽다고 생각하지 않고 매우 온당하게 들릴 것이 아닌가. 남은 아직 듣지 못한 소문 따위를 자기는 들어서 알고 있다고 해서, 『그건 그렇고, 그 사람의 일은 딱하기도 해……』 따위 건성으로 말을 꺼내어, 아니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러느냐고 되받아 묻게 하는 것 등은 좋은 일은 아니다. 세간에서는 소문이 파다하더라도 혹시 못 들은 사람도 개중에는 있을 터이니, 흐릿하지 않게 분명히 말해 주는 것이 나쁜 일일까. <나쁜 일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것은 處世에 서투른 사람이 흔히 저지르는 일이다.)

이 句節은 處世에 서투르고, 어설픈 사람들에게 당부를 하는 內容이다. 또 자기만 똑똑하고, 훌륭하다고 自慢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警告를 하는 句節이기도 하다. 現代人에게도 흔히 있는 事實이며, 약삭빠르지 못하고 좀 社交的이지 못한 사람들에게 영특해지도록 懇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남에게 잘 모르는 이야기나 소문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것이 좋은 사람이고, 人格이 풍부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兼好의 處世觀은 말(言)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 하였고, 말(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人格, 人間性이 드러남으로 말은 항상 신중하게 생각해 본후 할 말만 하는 것이 處世의 기본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多様な 經驗과 思想은 現在 日本人의 精神 속에 뿌리 깊이 자리잡고 있다는 事實을 確認할 수 있다.

20) 安良岡康作, 前掲書 下卷, P. 488.

## 4. 生活 指針

生活 指針이란 生活하거나 행동할 때, 보다 나은 方法, 方向을 提示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兼好가 말하는 生活 指針은 儉素하고, 約束은 굳게 지키고, 正직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過慾을 부리지 말고, 즐겁고 便宜하게 살아가라고 하였다. 또 才幹을 부리지 말고 무슨 일이나 조금하듯 서둘지 말라고도 하였다. 여기서 兼好는 成功의 秘訣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열심히 努力하며, 근면 성실하게 사는 것이 核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번에는 일의 順序에 대한 예를 들어 說明하여 보자.

「されば、一生の中、むねとあらまほしからん事の中に、いづれか勝ると、よく思ひ比べて、第一の事を案じ定めて、その外は思ひ捨てて、一事を勵むべし。一日の中、一時の中にも、多數の事の來らん中に、少しも益の勝らん事を營みて、その外をば打ち捨てて、大事を急ぐべきなり。何方をも捨てじと心に取り持ちては、一事も成るべからず。」<sup>21)</sup> (第188段)

(그렇기 때문에 一生을 통해서 주로 실현하고자 所望하는 일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가를 판가름하여 그 중 첫째가 무엇인가를 결정해 놓고, 그 밖의 일들은 애초부터 단념하여 한가지 일만 골똘하게 익혀나가는 것이 좋다. 하루 동안, 아니 한시간 동안에도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 오는 속에서 조금이라도 쓸모가 많은 일을 골라서 하고, 그 밖의 일은 내쳐버리고 중요한 것을 서둘러 해야 할 것이다. 어느 쪽도 버리지 않으려고 마음에 꼭 쥐고 있다가는 한가지 일도 이룩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句節은 一生을 통해서 생기게 되는 여러가지 일 중에도 순서가 있다는 법이다. 그래서 순서에 의해서 時期, 場所에 따라 가장 所望하는 한가지 일에만 沒頭하라는 內容이다. 卽,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한마리도 잡지 못한다.”는 우리나라의 俗談과 뜻을 같이 한다. 수많은 일 중에서 한가지를 取捨選擇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과욕을 부리지 말고 自己 能力껏 해나가야 한다고 兼好는 主張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은 우리나라의 明心寶鑑에도 쓰여있다.

21) 安良岡康作, 前掲書 下卷, P. 269.

「景行錄에 云明朝之事를 薄暮에 不可必이요 薄暮之事를 晡時에 不可必이니라.」<sup>22)</sup>

(경행록에 이르기를, “내일 아침의 일을 저녁때에 가히 그렇게 된다고 알지 못할 것이요. 저녁때의 일을 오후 네시쯤 가히 꼭 그렇게 된다고 알지 못할 것이니라.”고 하셨다.)고 적고 있다.

이번에는 慾望에 대한 例를 들어 說明하여 보자.

「次に, 正直にして, 約を固くすべし。この義を守りて利を求めん人は, 富の來る事, 火の燥けるに就き, 水の下れるに隨ふが如くなるべし。錢積りて尽きざる時は, 宴飲・聲色を事せず, 居所を飾らず, 所願を成ぜざれども, 心とこしなへに安く, 樂し」と申しき。」<sup>23)</sup> (第217段)

(다음에는 정직하게 행동하며 약속은 굳게 지키는 것이 좋다. 이러한 규칙을 잘 지켜가며 이득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조속한 시일내에 富가 찾아드는데, 그것은 마치 불이 잘 건조된 것으로 옮겨가며, 물이 낮은 것으로 흐르는 바와 같을 것이다. 금전이 쌓여 그칠 줄 모르더라도 酒宴이나 快樂을 좋아하지 말고, 주택을 꾸미지 말지어다. 욕망을 다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은 늘 便安하고 즐겁기 그지없는 것이다.』라고 했다.)

人間은 누구나 財産에 대한 慾望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財産을 蓄積하는 데는 限界가 있기 마련이지만 慾望은 끝이 없다. 慾望이 커지면 커질수록 심리적 불안감과 초조감만 더해 갈 뿐이다. 財物에 대한 慾望이나, 酒色, 奢侈, 快樂에 빠진다가나 하는 것은 아주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人間은 욕망을 버리고, 自己를 滅亡케 하는 惡念으로부터 벗어나 正直하고 約束을 굳게 지키며, 便安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해야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이 內容은 不安感과 焦燥感 속에서 매일매일 스트레스(stress)를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現代人들에게 健康하게 살아가는 秘訣을 일찍이 알려주는 兼好의 忠告라고도 생각된다. 또, 이러한 句節을 背景으로 現在의 日本人이 正直하고, 儉素하게 살아가는 生活 態度가 定着되게끔 影響을 미쳤다고 말할 수가 있다.

이번에는 酒法에 대한 例를 들어 說明하여 보자.

22) 編輯部 編, 明心寶鑑, 前掲書, P. 96.

23) 安良岡康作, 前掲書 下卷, P. 395.



「また、『人に酒勸むるとて、己れ先づたべて、人に強ひ奉らんとするは、劍にて人を斬らんとするに似たる事なり。……己れ先づ酔ひて臥しなば、人はとも召さじ』と申しき。」<sup>24)</sup> (第125段)

(또 『남에게 술을 권하기 위해서라고 해서 자기가 먼저 마시고 상대방에게는 무리하게 권하는 것은 劍으로 남을 배려하는 것과 같다. …… 자신이 먼저 취해서 곱아 떨어지면 남은 더 마시지 않을 것이다.』라고도 했다.)

兼好는 酒法에 關해서도 一家見이 있었다. 술을 마실 때에는 남에게 술을 勸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마셔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 남에게 無理하게 권하는 것은 失禮이고, 몸에도 해로운 것이니 失禮를 막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마시고 취하여 곱아 떨어지면 相對方은 더 마시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이번에는 成功의 秘訣에 대한 例를 들어 說明하여 보자.

「万の道の人、たとひ不堪なりといへども、堪能の非家の人に並ぶ時、必ず勝る事は、弛みなく慎みて輕々しく世ぬと、偏へに自由なるとの等しからぬなり。芸能・所作のみにあらず、大方の振舞・心遣ひも、愚かにして慎めるは、得の本なり。巧みにしてほしままなるは、失の本なり。」<sup>25)</sup> (第187段)

(모든 방면에 있어서 專門家는, 설사 그 솜씨가 아직 서투르다고 치더라도, 매우 훌륭한 非專門家와 나란히 솜씨를 겨루게 될 때, 그것은 專門家가 반드시 우수하다. 그것은 늘 주의하는 마음을 소홀히 하거나 아무렇게나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과, 오로지 제멋대로 하는 것과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이다. 藝能이나 技藝뿐만이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의 동작이나 配慮에 있어서도, 안달하며 조급하게 굴지 않고 주의깊게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 성공의 근원이 된다. 재간을 부리어 제멋대로 행하면 실패하기 마련인 것이다.)

이 句節은 兼好가 人間에게 成功의 秘訣을 가르쳐 주는 좋은 生活 指針이라고 할 수 있다.

첫번째로 專門家가 되라. 그 理由는 專門家가 되는 길은 험하기는 하지만 일단 되고 나면, 非專門家에 비해서 무슨 일이나 注意하는 마음을 소홀히 하거나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항상 注意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무슨 일이나 서두르지 말고 注意깊게 차근차근 해나

24) 安良岡康作, 前掲書 上卷, P. 524.

25) 安良岡康作, 前掲書 下卷, P. 264.

가라. 才幹을 부리지 않고, 日常 속에서 안달하며 조금하게 굴지않고 차근 차근히 해나가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成功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兼好는 生活指針을 통해 사람들에게 多様な 면으로 忠告하고 있다. 主 內容은 人間은 勤勉 誠實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名言으로 수세기가 지난 오늘날의 現代人에게도 人間이 지켜야 하고 알아야 할 生活의 보루라고 할 수 있으며, 生活 方向을 가르쳐주는 指針書라고도 할 수 있다.

## 5. 生活 哲學

人生 歷程은 定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變化無變하게 變할 수 있는 것이니 너무 連연해 할 필요가 없다고 兼好는 強調하고 있다. 成功한 사람, 훌륭한 사람은 行動이 放恣하지 않고, 模範的이며, 規則을 잘 지킨다고 하였다. 또 人間은 自己自身을 過大 評價하지 말고, 寡黙하게 處身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하였다. 또한, 財産을 蓄積하는 것은 罪惡의 온상이 된다고 하여 잘못하면 破滅을 招來하므로 無理한 慾心을 부리지 말라고 強力하게 警告하고 있다.

이번에는 第189段의 例를 들어 보자.

「日々に過ぎ行くさま、予て思ひつるには似ず。一年の中もかくの如し。一生の間もしかなり。予てのあらまし、皆違ひ行くかと思ふに、おのづから、違はぬ事もあれば、いよいよ、物は定め難し。不定と心得ぬのみ、實にて違はず。」<sup>26)</sup> (第189段)

(매일 흐르듯 지나가는 現象은 미리 예상하고 있는대로 되지 않는다. 一年 동안의 일도 그러하고, 一平生의 일도 또한 그러하다. 예정 하던 소망이 모두 허물어 지는가 하면, 어찌다가 또 들어 맞는 수도 있어서, 점점 더 사물의 결과를 어림잡을 수도 없는 것이다. 다만 世上事란 無常하며, 정해진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아두는 것만이 진실이고 틀림이 없다.)

世上事란 豫想이 들어 맞기도 하지만 전혀 틀리는 일이 허다 하다. 우

26) 安良岡康作, 前掲書 下卷, P. 280.

리나라 俗談에 “人生은 塞翁之馬”라고 하는 말이 있다. 것처럼 世上事는 定해져 있지 않다는 것을 兼好는 말하여 주고 있다.

이번에는 寡黙하라는 例를 들어 說明하여 보자.

「万のところがあらじと思はば、何事にもまことありて、人を分かず、うやうやしく、言葉少からんには如かじ。男女・老少・皆・さる人こそよけれども、……万のところがは、馴れたるさまに上手めき、所得たる氣色して、人をないがしろにするにあり。」<sup>27)</sup> (第233段)

(만사를 실수없이 하려고 한다면, 무슨 일이나 진심을 다하여 사람 차별을 하지 않고 공손하며, 말수가 적은 것이 제일 좋다. 남녀노소 구별없이 누구나가 다 그러하지만, …… 모든 過失은 아주 익숙한 채 하고, 능숙한 솜씨를 자랑하려는 데서 생기며, 특히 남을 깔보고, <제가 무엇을 하라, 내가 제일이지> 우쭐대는 데서 생기는 법이다.)

萬事に 失手없이 對處하려면 寡黙함이 제일 좋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남을 깔보는 姿勢를 가진 사람은 마음을 고쳐서 모든 사람에게 誠實하고 謙讓의 마음을 가지도록 덕을 쌓는것이 가장 賢明한 方法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또 이와 비슷한 內容은 우리나라의 明心寶鑑에도 쓰여 있다.

「筍子 - 曰無用之辨과 不急之察을 棄而勿治하라。」<sup>28)</sup>  
(순자가 말하기를, “쓸데 없는 말과 급하지 아니한 일은 그만두고 다스리지 말라.”고 하셨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太公曰勿以貴己而賤人하고 勿而自大而蔑小하고 勿以恃勇而 徑敵이니라。」<sup>29)</sup>

(태공이 말하기를, “나를 귀하게 여김으로써 남을 천하게 여기지 말고 자기가 크다고 해서 남의 작은 것을 업신 여기지 말며 용맹을 믿고서 적을 가볍게 여기지 말 것이니라.”고 하셨다.)고 적고 있다.

이번에는 成功한 사람에 對한 例를 들어 說明하여 보자.

「能をつかんとする人、『よくせざらんほどは、なまじひに人に知ら

27) 安良岡康作, 前掲書 下卷, P. 486.

28) 編輯部 編, 明心寶鑑, 前掲書, P. 40.

29) 編輯部 編, 明心寶鑑, 前掲書, P. 31.

れじ。うちうちよく習ひ得て、さし出でたらんこそ、いと心にくからめ』と常に言ふれど、かく言ふ人、一芸も習ひ得ることなし。……天下のものの上手といへども、始めは、不堪の聞えもあり、無下のかきんもありき。されども、その人、道の掟正しく、これを重くして、はうらつせざれば、世の博士にて、万人の師となる事、諸道変るべからず。』<sup>30)</sup>(第150段)

(藝能을 배워서 익히려고 하는 사람이 아직 능숙해지기 전에는 설 불리 남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몰래 연습해서 능숙해진 후에야 남의 앞에 나서는 것이 점잖고 의젓한 일이라고 대개는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러한 사람은 한 가지의 藝能도 습득할 수가 없다. …… 天下에 그 이름을 떨치는 藝能에 출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초에는 능숙하지 못하다는 평판도 있고 심한 缺點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藝道の 규칙을 올바르게 지키고 소중하게 여겨 방자하지 않게 한다면, 一代의 모범이 되고 万人의 스승이 된다는 것은 어느 길에 있어서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이 句節에서는 代表的으로 藝能을 例로 들어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은 人間の 모든 行動에 通用되는 것이다. 人間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다. 모든 일에 성공한 사람이나, 훌륭한 사람은 規則을 올바르게 지키고 放恣하지 않고, 模範的인 行動을 한다. 또 처음에는 무슨 일이나 서투르지만 올바르게, 模範的인 行動은 万人의 스승이 될 수 있다. 이와같이 謙遜한 마음으로 熱心히 배우려고 노력 한다면 어느 分野에서나 마찬가지로 天下에 그 이름을 떨칠 수 있기 마련이라고 強調하고 있다. 이번에는 자기 分數에 대한 例를 들어 說明하여 보자.

「貧しき者は、財をもて礼とし、老いたる者は、力をもて礼とす。己が分を知りて、及ばざる時は速かに止むを、智といふべし。…… 貧しくて分を知らざれば盜み、力衰へて分を知らざれば病を受け。』<sup>31)</sup>(第131段)

(가난한 사람은 財貨를 尊重하고, 노인은 完력을 존중하여 소중히 여긴다. 자신의 分수를 자각하고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재빨리 손을 떼는 것이 智者의 취할 길인 것이다. …… 가난한 사람이 자신의 分수를 잃으면 도둑질을 할 것이요, 노인이 力不足한 것을 한다면 병을 얻을 것이다.)

人間은 자신의 能力을 헤아리지 못하고 過大評價하여 無理하게 강행하

30) 安良岡康作, 前掲書 下卷, P. 94.

31) 安良岡康作, 前掲書 上卷, P. 544 .

는 것은 自己의 잘못이다. 兼好는 생활을 하면서 自己의 分數에 맞지않는 無理한 慾心을 부린다면 破滅을 招來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智者는 빨리 그러한 일에서 손을 뗀다고 했다. 또 언제나 自己 分數를 알고 行動할 것을 萬人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것은 分數를 모르고 無限定 慾心을 부리는 現代人들이 銘心해야 할 生活 哲學의 論理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는 財産은 虛無하다는 事實에 대한 例를 들어 보자.

「身死して財殘る事は、智者のせざる処なり。よからぬ物蓄へ置きたるもつたなく、よき物は、心を止めけんとはかなし。……後は誰にと志す物あらば、生けらんうちにぞ譲るべき。朝夕なくてかなはざらん物こそあらめ、その外は、何も持たでぞあらまほしき。」<sup>32)</sup> (第140段)

(죽고 난 후에 재산이 남는다는 것은 현명한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이다. 보잘것 없는 물품을 축적해 놓은 것은 부질없는 노릇이요, 좋은 물품은 좋은 물품이기 때문에 미련이 있었으리라는 생각에서 허무하면 하다. …… 죽은 뒤에 누구에게 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살아 생전에 주는 것이 좋다. 늘 곁에 두고 써야 할 필수품은 하는 수 없지만, 그 밖의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편이 할가분한 것이어서 좋다.)

人間이 죽어버린 後 財産이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다. 산 사람에게 는 살기위한 手段으로 利用된다고 하지만 죽은 뒤에는 無用之物이 되거나, 虛無하기만 하다. 財産을 蓄積하기 위해 殺人을 하거나, 온갖 不正을 일삼는 사람들, 이러한 現代人들은 拜金主義에 젖어 人間性을 상실한체 살아 가고 있다. 特히 오늘날의 政治家, 企業家의 認識轉換이 요구되는 警句이다. 財産은 삶의 手段은 될 수 있지만 目的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銘心하라고 하고 있다.

더구나 財産을 가지고 다툰다거나 하는 것은 불품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 生前에 財産을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에게 꼭 必要한 것 外에는 나누어 주라고 兼好는 勸하고 있다.

이번에는 노름에 대한 例를 들어 보자.

「『ばくちの、負極まりて、残りなく打ち入れんとせんにあひては、打つべからず。立ち返り、續けて勝つべき時の至れると知るべし。その時

32) 安良岡康作, 前掲書 下卷, P. 58.

を知るを、よきばくちといふなり』と、或者申しき。」<sup>33)</sup> (第126段)

(『노름판에서 지는 일이 자꾸만 계속되어 끝장이 날만큼 되어 재물을 몽땅 걸려고 할 때에는 그와 맞서면 안된다. <지금까지 지는 운수를 가졌던 사람이> 이번엔 그와 반대로 계속해서 이길 운수가 돌아온 것이라고 간주해야 한다. 그 時運을 아는 것을, 잘하는 노름꾼이라고 한다.』고 누군가가 말했다고.)

兼好는 노름판에서의 생활에도 경험이 풍부함을 말해 주고 있다. 사람이 살아 가는데 時運은 참으로 重要하다. 時運을 안다는 것은 世上을 살아가는데 賢명한 智慧가 있는 사람이다.

이 句節은 인생의 時運도 노름꾼의 時運과 같아, 너무 서두르거나, 너무 時間을 잃지 않는, 時間을 잘 捕捉하는 사람이 人生을 살아 가는데 能力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時運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렇다고 時運만을 기다리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때가 되었을 때 能力을 發揮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努力이 수반 되어야만 可能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번에는 不具者에 대한 例를 들어 說明하여 보자.

「ただ素直に珍らしからぬ物には如かずと思ひて、帰りて後、この間、植木を好みて、異様に曲折あるを求めて、目を喜ばしめつるは、かのかたはを愛するなりけりと、興なく覺えければ、鉢に植ゑられける木ども、皆堀り捨てられにけり。」<sup>34)</sup> (第154段)

(역시 정상적인 상태가 제일 좋은 것이로구나 하고 절실하게 느꼈다. 그 후 사람들이 소나무 따위의 수목을 이상하게 구부러진 것을 즐겨 찾아내어서 바라다보며 좋아한 것은 바로 그 불구자들을 즐겨 좋아하는 바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 흥이 깨지는 느낌이었기에, 분제로 심어 놓았던 나무 등을 모두 캐내어 버렸다고 한다.)

自然스럽게 나무를 키우지 않고, 盆栽는 樹木을 이상하게 구부러지도록 하여 사람들이 愛玩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대로 만든 盆栽가 不具者를 보고 희롱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스케모도(資朝)경이 全部 캐어내어 버렸다는 內容이다.

兼好는 사람들이 올바르고 정당한 생각을 가지고, 正直한 生活을 할 수

33) 安良岡康作, 前掲書 上卷, P. 527.

34) 安良岡康作, 前掲書 下卷, P. 112.

있는 世上이 되도록 努力 하였다. 그래서 不具者를 보고 즐거워 하고 희롱하는 그러한 社會가 되지 않도록 바라고 있었다.

그 當時의 不具者에 대한 配慮는 現 日本 社會에서 世界的으로 模範的인 肢體 不自由者의 厚生福利에 큰 影響을 미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한다.

### III. 結 論

兼好는 世俗的인 名利를 떠나, 인간으로써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대명제를 그의 思考方式으로 삼았다. 그의 哲學은 철저한 觀念論的이지만, 도덕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며 실재의 생활주의자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不朽의 藝術論을 지닌 文人으로 佛敎, 儒敎, 道敎를 涉獵한 思想家이자, 自由主義者 였다.

그러나, 兼好가 살았던 時期를 살펴보면 日本 歷史上 가장 심한 激動期였으며, 社會가 混亂스러웠을 때 였다. 이러한 狀況 속에서 나타난 兼好의 폭넓은 生活觀을 14C에 쓰여진 『徒然草』를 통해 여러면에서 살펴보았다. 또 같은 시대의 14C초에 저술한 우리나라의 明心寶鑑에 쓰여진 名言들을 비슷한 내용 몇가지만 비교하여 살펴 보았다.

이 時期의 兼好의 狹意의 生活觀을 살펴보면 적당한 家屋 構造에 대한 說明, 自給自足할 수 있도록 最大한 많은 것을 涉獵하라는 당부의 말도 하였다. 또 衣·食·住 以外에 藥을 包含한 四要素를 갖추라고 하였고, 火災나 죽음 등 不可抗力의인 일에도 항상 對備하라고 하였다. 또한, 儉約觀에 對한 그의 見解는 節約하는 精神이 爲政者를 비롯해서 一般 百姓에 까지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점을 詳細하게 보여주며 說明 하였다. 處世觀을 살펴보면 家庭訪問의 禮節, 말의 重要性 등을 내세워 그의 主張을 더 擴大 深化시키고 있다. 生活指針에서는 生活을 維持해 나가는데 지켜야 할 法規, 規範, 風習, 禮節, 法道를 대단히 重要하게 생각 하였다. 生活 哲學에서는 寡默하고, 過慾하지 말며 時運을 기다려 분수껏 行動해야 한다는 點을 強調 하였다.

兼好의 生活觀은 時代가 變하고 社會가 變한다 해도 그대로 通用되는 삶의 根本 思想이다. 이것은 東西古今의 歷史的 眞理이고, 人間 生活史의

基礎가 되는 思想이며, 數世紀가 지난 現代 日本에서의 明心寶鑑이며 틀리지 않는 處世觀이다. 이러한 思想은 儒教思想과 一脈相通하며 人類가 生存하는 限 變하지 않는 固有한 것이다. 兼好의 『徒然草』가 發表된 以後 繼續 出版되어 왔으며, 日本 社會에서는 女子가 結婚할 때 가져가야 하는 持參書가 되었다. 그래서 『徒然草』의 兼好思想은 어머니 教育의 教材가 되었으며, 自然스럽게 子女들을 教育시키게 되었고, 傳受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兼好의 生活觀, 즉 正直하고 儉素한 生活, 分數를 알고, 禮義를 지키며 살아가는 態度가 日本의 國民性으로 바뀌어 後世들에게 傳承 傳受되어 오늘날의 日本 社會에 뿌리 깊이 박히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日本の 國民성과 생활면에 대해 더 잘 알기위해 앞으로 『徒然草』가 현재의 日本인의 國民성과 생활관에 대해 끼친 영향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있었으면 하는 점이 필자의 바램이다.

#### < 參 考 文 獻 >

- 安良岡康作：徒然草 全注釋上下卷, 角川書店, 1991.  
 小 出 光：徒然草, 旺文社, 1984.  
 久保田淳：研究資料日本古典文學, 明治書院, 1979.  
 唐木順三：中世の文學, 筑摩書房, 1955.  
 久保田淳：中世文學の世界, 東京大學出版會, 1972.  
 西田正好：無常の文學, 槁新書, 1975.  
 宋 肅 庚：徒然草, 乙酉文化社, 1975.  
 赤根祥一：無常の思想, れんが書房紳社, 1980.  
 三木紀人：方丈記・徒然草, 尙學圖書, 1980.  
 藤原正義：中世作家の思想と方法, 風間書房, 1981.  
 西 尾 實：方丈記・徒然草, 岩坡書店, 1982.  
 永 藤 請：中世日本文學と時間意識, 未來社, 1984.  
 安西拙夫：枕草子, 旺文社, 1984.  
 川 一 馬：徒然草校注, 講談社, 1985.  
 守 屋 毅：日本中世の視座, 日本放送出版協會, 1985.



田邊 爵：古典評釋 徒然草, 右文書院, 1986.

編輯部譯：明心寶鑑, 栗谷文化社, 1989.

李基 奭：新譯明心寶鑑, 弘新文化社, 1994.

柳正基監修：四書三經, 明文堂, 1991.

日本文學研究資料刊行會：日本文學資料叢書(方丈記, 徒然草)有精堂, 1975.



